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부흥 제목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

성경:하박국 3장 1-13절

1 시기오녓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데 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5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6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8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 기심이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이니까

9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12 주께서 노를 발하시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13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합3:1-13)

흔히 교회에서 부흥을 말하면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인들의 수도 많아져서 교세가 커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짐작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다르다.

특히 요즘 한국교회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자들의 숫자는 늘지 않으나 큰 교회는 더욱 신자들이 늘고 있으니 이는 명백히 수평이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부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힘든 노릇이다.

하박국서는 부흥에 관한 예언서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김왕 시절의 선지자다.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고 유다의 운명이 다해가는 때의 왕이다.

하박국은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 때문에 절규한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악한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가만히 계시는지 안타까워 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부흥이 결코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부흥과는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세상은 부흥하려고 하지 않고 타락하려고 하고 멸망하려고 한다. 멸망을 향한 가속도가 붙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부흥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부흥이 반대말이 멸망이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가? 아니다.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개입을 촉발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개입은 결국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사람의 강포는 하나님의 부흥을 물러가게 하지만, 그 강포의 끝은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개입을 의미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개입은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유익을 세상에게 선사하게 된다.

우선 심판은 마땅히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멸망의 수레바퀴에 깔리게 된다. 하지만 의인들은 심판의 중심에서도 역시 의인이기 때문에 희생하게 되고 중보하게 된다. 그리고 의인의 희생은 하나님의 긍휼에 불을 붙이게 되고, 세상에는 비로소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된다.

결국 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롯’은 빠른 박자의 노래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자진모리나 휘모리에 속할 것이다. 이는 이제 급박한 하나님의 부흥에 관해서 예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적극적이다.

-우리가 복만 받으려고하고, 재앙이나 저주는 피하려고만 하면 마귀에게 지게 된다.

-왜냐면 재앙이나 저주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다. 꼭 나 뿐만이 아니라 마치 화학적 결합과 같이 복과 저주는 뒤섞여 있기 때문에 나만 홀로 복 속에만 있으리라고 계획하면 곤란하다.

-그렇다고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와중에도 믿음으로 자신의 의를 정결하게 하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해 가라는 뜻이다.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서 나랏일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치자. 그렇다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터의 영역에서, 더 작게는 자신의 생각

의 영역이나 일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아무도 나에게 보란 듯이 성공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분수에서 성공하기를 소망할 뿐이다.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소문을 듣고 놀라는 하박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을 듣고 놀란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때로부터 하박국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개입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하나님의 역사개입을 촉구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을 일으키실 것인데,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부흥에 개입하는 것은 기도이다. 부흥에 대한 갈망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면 세상은 먼저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심판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다. 그리고 긍휼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임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긍휼을 입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부흥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멸망은 마귀의 목적이다. 그래서 마귀는 부흥을 갈망하지 못하게 하여 아무도 긍휼을 입지 못하고 모두다 저주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진노 가운데 긍휼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가 진노를 당할 때 회개하여 긍휼을 입도록 하는데 있다.

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데

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데만은 에돔 지역이며 바란산은 에돔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산악지역이다. 하박국이 바란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표현한 이유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바란산에 이르렀을 때에 만나로 인해서 불평할 때 모세가 자신의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때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부흥의 시작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당시의 사건은 부끄러운 사건이다. 이스라엘 중에 이방 족속이 섞여 살았는데, 그들이 만나로 인해서 불평을 하자 온 민족이 같이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모세는 중보기도하자 장로 70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사건이다.

4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빛은 선한 행실이다.

5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총체적으로는 40년 광야생활이 이스라엘에 임한 진노인데, 약 열번의 원망, 반역, 간음, 불신앙등으로 요약되며 그때마다 재앙이 임하였다.

6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이라는 형식으로 임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뜻한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두 민족을 말한다. 이방 나라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8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
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9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특히 8-10절은 출애굽을 묘사한 것이다.

11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12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
이다

13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합3:1-13)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것이 진정한 부흥의 목적이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도약하고
진보하는 세계를 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다.

-우리는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소망하며, 갈
망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의를 이루며, 중보하며 구원이 완성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